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

전북도, 홀로그램 산업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2차 추가 선정 위해 탄소·식품·자동차산업 등 추진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관련 규제특례법'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전북의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주에 개최한 시도 회의에서 특구 계획 34개 중 10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 발표한 결과, 전북도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탄소, 식품산업 등 준비 중인 사업들은 12월에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역특구법 시행일인 17일에 맞춰 '전라북도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는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추

진되는 사업이다.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15km 일대에 구축되고 특구사업자인 14개의 기업과 4개 기관이 함께하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빔공해 방지법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신기술 사업 총 8건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 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HUD 제품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앞면 장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50%로 완화로 규제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며,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등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AI 홀로그램 비서를 통해 허공에 터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금지사항을 부분 허용으로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정량적으로는 구

제자유특구 대상사업자의 매출 1,500억원 증가, 고용창출 350명, 신기술 창업기업 10개사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되며, 기존 지역의 중추 산업인 자동차 및 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 탄소융복합, 식품, 헬스케어산업, 자동차 산업도 각 산업분야별로 규제특례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보완하여 하반기에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칠 계획이다.

전북도 유희숙 혁신성장산업육성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7월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 대응해 나가겠으며, 향후 하반기에 있을 2차 특구 지정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혁신성장사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1000리길 해설사 양성으로 힐링관광 기반 다지기 나서

전북도가 전북 1000리길에 이야기를 입힌 전문 해설사를 양성해 힐링관광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의 아름다운 길을 생태·역사·문화와 함께 안내하는 천리길 해설사 양성교육을 4월 18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다.

'전북 1000리길 해설사 양성과정'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북 1000리길'에 대해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도민 30여명을 대상으로 18, 19, 25일 총 3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2018년도에 이어 두

번째 교육으로 기존에 양성된 천리길 해설사의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에 중점을 두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전라북도 1000리길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천리길 대표노선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설을 기획하는 방법론과 실습 그리고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으로 구성되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문가의 해설사면 심사를 통해 교육생의 현장역량 평가를 거쳐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향후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

리 도내 아름다운 1000리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양성된 해설사를 통하여, 전북 1000리길에 대해 홍보, 안내 조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 천리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9 전북 천리길 전국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 1000리길'을 전국에 알리고 우수사진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홍보도를 도모하기 위한 공모전인 만큼 도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국제교류센터, '청소년 모의유엔회의' 참가자 모집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오는 8월 열리는 '제4회 전라북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는 도내 청소년의 유엔·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제4회 회의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김제국

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다.

국제교류센터는 도내 중고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속 학교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13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는 제1위원회와 한국어로 진행되는 제2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식량안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유엔의 포용적 구상', '유엔의 청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합한 전략'이라는 2가지 의제를 갖고 소속 국가를 대표해 토론을 진행한다.

모의유엔회의의 참가자에게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교관련 기구 견학 프로그램 참가 우선권을 부여하며, 우수팀에는 전라북도지사상, 전라북도회의의장상, 전라북도교육감상 등을 수여한다.

/김진성 기자

“위급 상황에 당황 말고 ‘하트시그널’ 하세요”

도 소방본부, 상황별 신고 요령 체크 체험프로그램 개발 내 위치 알리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 습득 기대

앞으로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전국 유일 상황별 신고 요령을 체득할 수 있는 하트시그널(Heart Signal) 체험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마재운)는 2019년도 교육부 학생 안전 체험시설 확충 공모사업으로 전북도가 최종 선정되어 국고에서 사업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전국 유일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북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체험객 600명(초등학생 300, 중학생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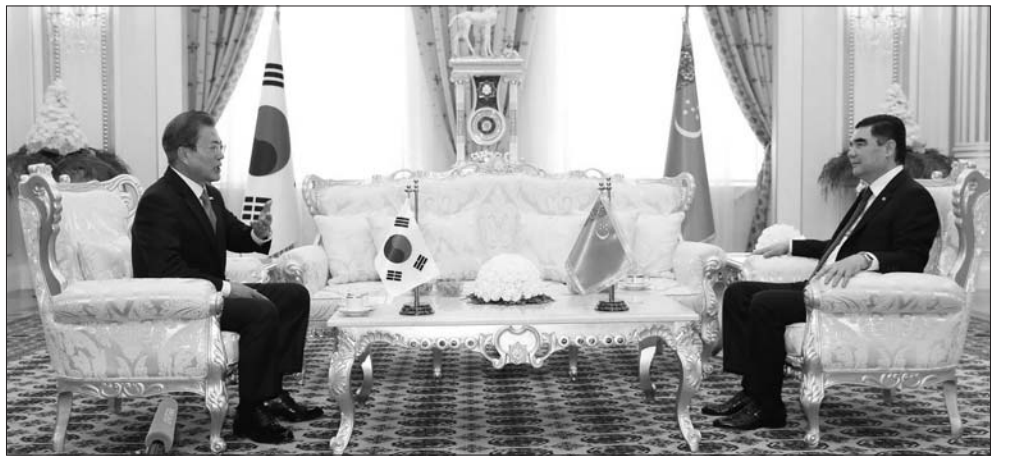
성인 200)을 대상으로 상황별 올바른 신고 요령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초등 7%, 중등 27%, 성인 38%만이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전화인 119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를 알리는 것이라 판단하고 올바른 신고요령 교육 및 자신의 위치 통보 방법 설명, 상황별 신고 교육의 필요성을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 하트시그널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내 위치를 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지점번호 ▲전신주 ▲공중전화 ▲고속도로 표지판 ▲산악위치표지판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주변 건물상호 및 유선번호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트시그널 체험 프로그램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받게 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1관) 119종합상황실 실험체험장 (2관) VR을 활용한 상황별 체험장을 개발할 방침이다.

지난 상황 부여에 따른 상황별 대처 및 119신고 요령을 교육과정에 담아가장 선행되어야 할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질 높은 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단독회담 하는 문재인 대통령 - 구르반굴리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17일 오전(현지시각) 이시거버트 대통령궁 오구즈한 홀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지자체 접촉하며 교육협력행보 강화

전북도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과 관계자 등이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를 방문해 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16일 정 부교육감과 이수경 익산교육장 등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에서는 '푸드플랜 어린이 전문교육관 조성' 등을 위한 폐교활용 방안과 익산외국어센터 운영방안, 전국 소년체전 협조 등 3건의 안건을 제시했다. 도교육청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함께 돌봄 체계 구축'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과 익산시장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150여명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방과후 돌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할 중요한 교육서비스"라며 "폐교활용과 지자체 차원의 돌봄센터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또한 옛 남중학교 부지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투자해 건설 중인 '익산외국

어교육센터'의 공동운영방안, 신흥초등학교와 이리중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설치, 오는 5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장애인소년체전의 성공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는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군산시 교육지원과 관계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예코시티와 혁신도시 학교신설을 위한 협력, 학부모 교육 상호협력,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군산시 관내 학교신설과 이전 등에 협력해 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 담당자는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서울과 경기처럼 지자체와 협력이 잘 되는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